

# 大巡思想의 神觀攷 (二)

## 제 二 편 상제론(上帝論)

林 泳 暢 \*

### 目 次

|                        |                   |
|------------------------|-------------------|
| I. 서설(序說)              |                   |
| 1. 상제(上帝)의 어휘(語彙)적 고찰  | 4. 상제의 도화인신(道化人身) |
| 2. 상제신앙의 필수성           | IV. 도조(구천상제)론     |
| II. 상제신앙의 신학(神學)적 정립   | 1. 도조의 생애(生涯)     |
| 1. 종교학적 전개(展開)와 신학적 전개 | 2. 도조의 사상(思想)     |
| 2. 神신앙과 교의(敎義)신앙의 차이   | 3. 상제로서의 권능(權能)   |
| 3. 신학적 대순사상의 정립(定立)    | V. 도주(옥황상제)론      |
| III. 대순사상의 상제신앙        | 1. 도주의 생애(生涯)     |
| 1. 양위(兩位)상제 신앙의 역사성    | 2. 도주의 사상         |
| 2. 상제신앙의 신학적 논증(論證)    | 3. 상제로서의 권능과 교화   |
| 3. 상제의 위격(位格)과 위호(位號)  | VI. 결어(結語)        |

## I. 서설(序說)

본고(本稿)는 대순사상의 신관고(神觀攷)의 제2편으로 종교단체 대순진리회가 신앙대상으로 받드는 구천·옥황 양위상제에 대하여 고찰코자 한다.

먼저 하나의 종교구성에는 신앙대상인 주신(主神)의 봉대(奉戴)가 절대 불

\* 전해사 교수

가결의 요소인 바 그 필수성을 논하기에 앞서 주신(主神)의 호칭인 ‘상제(上帝)’라는 어휘의 고찰부터 시(試)하려 한다.

## 1. 상제(上帝)의 어휘적(語彙的) 고찰

‘上帝’라는 어휘는 한자어로서 한국 고유의 ‘하느님’(후에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등으로 혼용하고 있음)과도 동일어(同義語)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구어의 god를 상제)로 번역 사용하기도 했으며 희랍어의 제오스(ZEUS)나 로마의 쥬피터(JUPITER)같은 신도 그렇게 번역한 것이 있을 만큼 우주의 최고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 한 예로 개화 초창기에 기독교에서 부르던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주의 주재 상제께옵서  
천지를 짓고 사람 내실 제  
아세아 동방 들출한 반도  
2천만 인구 우리 났도다.

이런 노래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god를 중국어나 한국어 상제라고 사용했었다.

근자에 일부 불교계 인사들이 기독교가 한국의 하느님(하나님)이란 어휘를 무단히 자의로 번역 사용한다고 해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일도 있지만 이러한 일의 시비는 선뜻 가부의 해답이 내려지지 않는 일일 것이다.

아무튼 상제라는 하나의 어휘가 가위 보통명사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신앙 대상인 고유명사화하여 정착이 되어 있는 바 이 상제란 말을 어원적으로부터 발전 과정을 살펴 보려 한다.

上帝란 어휘를 사전에서 찾아 본다.

---

1) 中華民國聖書公司 聖經全書 舊約 創世記 1:1 ‘太初上帝創造天地’

上帝 : 만유를 지배하는 主神, 천지 만물의 주재, 하늘(天), 天帝, 上皇, 造化<sup>2)</sup>

그런데 한국의 한자사전이나 국어사전에는 옥황상제라는 어휘는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상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상제란 말의 최초 출처는 후한서(後漢書) 반고전(班固傳)에 ‘상제회이강감(上帝懷而降鑑)’이라고 한 것이 그 효시(嚆矢)가 된다.

이 상제에 대하여 일본 동경대학에서 출판한 사서<sup>3)</sup>(辭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국서는 상고시대부터 하늘 [天] 숭배 사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격화한 존재가 아닌 자연 현상의 푸른 하늘 [蒼天] 이었다. 그것이 발전하여 천지의 도(道 = 理法) 자체로서 수용되었는데, 후한(後漢) 때 와서 마치 지상에 황제(또는 상제로도 호칭한)가 있듯이 하늘에도 천제(天帝) 또는 상제라는 주재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상제라는 위호(位號)의 호칭이 생겨서 정착되었다.’ (창천외에도 상천(上天), 민천(旻天), 호천(昊天), 황천(皇天) (호천상제, 황천상제) 등의 칭호가 있어서 차츰 인격화했던 것이지만 상세한 것은 생략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천사상은 자연 현상의 하늘을 우러러 창천(蒼天) 등, 최고의 존재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 후에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그 주재자를 상제라고 호칭한 것이다.

여기서 당대(唐代)에 발전한 옥황상제 호칭에 대한 사실을 피력하면 이리하다.

송대(宋代)에 와서 노자(老子), 장자(莊子)의 교훈에 유교 불교의 교의를 가미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교(道敎)인바 하늘의 최고 신을 옥황(玉皇)이라고 명명했다.

2) 일본 富山房 服部宇之吉 著 漢和大辭典

3) 일본 東京大學 出版部 宗敎學辭典

그래서 도교(道敎)에서의 최고위신인 옥황(玉皇)과 유교의 최고위신인 상제를 합성하여 옥황상제(玉皇上帝)라는 새로운 명호(名號)로 부르는 결과를 낳았다<sup>4)</sup> 이렇게 옥황상제(玉皇上帝)를 따지면 도교와 유교의 악수로서 생긴 복합명사(複合名詞)가 바로 그것이었으니 이 옥황상제의 명호가 그 후의 동양 각국에 두루 보급되었다.

그후에 도교가 하나의 옥황에 만족하지 않고 동·서·남·북·중앙에 있는 옥황 다섯분을 모시게 된다. 그 명호들이 청옥황(靑玉皇), 금옥황(金玉皇), 백옥황(白玉皇) 등 5방에 배치된 5옥황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sup>5)</sup> 그 가운데도 오두미류(五斗米流)에서는 5옥황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 위에 통제기관으로 모시게 된 최고 존재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구천 천존은 동방을 주재할 뿐이라고 해서 5방인 동·서·남·북·중앙으로 나뉜 다른 원시천존을 모시게 되어 다섯 천존이 생겨나게 된다. 그 명호들은 본교에서는 필요가 없기에 생략한다.

다만 그 가운데 으뜸되는 천존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sup>6)</sup>이니 그 천존이 바로 인신(人身)으로 화현(化現) 강탄하였다고 믿는 대상이 대순진리회의 주신(主神), 구천(九天) 상제 강증산(姜甌山)이다.

## 2. 상제 신앙의 필수성(必須性)

하나의 종교가 성립되는데는 3대 요소가 있다.

1. 신앙 대상이 있어야 하며
2. 신앙자의 집합체가 있어야 하고
3. 종교로서의 의식, 법방이 있어야 하며

그밖에 경전등 교서와 교당, 교회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첫째로 필요, 필수인 일은 신앙 대상이니 대순진리회의 경우는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다.

뒤에 증산과 정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것이지만 증산을 구천상제로 봉대한 것이 정산이며 그 정산을 옥황상제로 봉대한 것은 그 후의 도인들이

4) 前 揭書 玉皇上帝

5) 滄東書館 玉樞寶經

6) 대순진리회 요람 신앙의 대상

다.

그렇게 하여 양위상제로 정착된 것은 40여년, 증산을 구천상제로 모신 것은 70여년이 된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典經)을 위시하여 간행 인쇄물 등에는 신앙 대상을 구천상제 1위로 하고 옥황으로 모신 정산은 도주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에 대순의 도인들이 양위상제에게 귀의하는 그 신심을 타종교인이나 종교학자들이 함부로 회자(膾炙)할 수 없으니 신앙 대상이 바로 무극신(無極神) 구천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姜聖上帝)며 아울러 태극신 옥황상제 조성상제(太極神 玉皇上帝 趙聖上帝)의 두분을 합한 양위상제가 대순 도인들의 신앙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때문에 구천상제(九天上帝)와 옥황상제(玉皇上帝)의 양위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대순의 도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양위신앙의 사실과 함께 이 이론은 인문과학의 종교학적인 해석으로서가 아닌 대순종학 내지 신학적(神學的)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력하게 종학 또는 신학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양위상제에게의 신심(信心)이 없는 사람은 대순진리의 도인이 될 수 없다는 필수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양위상제에게 대한 신심을 바탕으로 하여 그 양위분에게의 귀의심을 요건으로 하는데서 대순진리회가 교단으로서의 종교로 성립되고 있다. 때문에 모든 대순 도인들의 양위상제에의 신심이 종교인으로서의 필수조건이라는 전제 아래서 다음 이론도 전개되는 것이다.

## Ⅱ. 상제신앙의 신학(神學)적 정립(定立)

일반인들의 경우 종교학과 신학을 구별하지 못하는 혐(嫌)이 있다.

그것은 두가지 학문이 서로 다른데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학(宗敎學)은

엄연한 인문과학(人文科學)의 하나로서 학술적 과학의 위치에서 비판 또는 해설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신학(神學)이란 서구에서 기독교적으로 발달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학문이 아닌 신본위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특수인들의 손에서 발전, 발달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종교학은 인문과학이지마는 신학은 신앙에 입각한 도그마(dogma), 바로 독단(獨斷)그것이기 때문이다.(가위 전세계 모든 종교 교의가 같은 범주에 들 것이다.)

그러므로 논자(論者)는 여기서 대순진리를 종교학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다른 각도인 신학적으로 전개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대순사상을 종교학적으로만 비판하면 이해하지 못할 부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실이 그 종교의 신앙 대상인 주신(主神)의 소위 예정(豫定)한 섭리(攝理)<sup>7)</sup>(대순사상에서 상제의 천지도수(天地度數) 조정에 의한 삼계공사(三界公事)<sup>8)</sup>가 이에 해당한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인문과학인 종교학의 관점과는 다르게 관조(觀照)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대순진리회의 주신인 구천·옥황 양위상제를 하나의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19세기말에 전라도 고부(古阜)서 탄생한 강일순(姜一淳, 道號 甌山)이라는 사람과 경상도 칠원(漆原)서 탄생한 조철제(趙哲濟, 道號 鼎山)라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는 도조(道祖)로 또 하나는 도주(道主)로 되어 성립한 종교단체 대순진리회를 객관적으로 연구 비판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종학 또는 신학에서는 귀납적으로 종합 설명하고 비판하는 종교학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신학적 관점이란 먼저 주관적인 신앙에 입각한 기정사실과 사상을 연역적(演繹的)으로 해설, 연구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문과학의 하나인 종교학의 경우와는 다른 신앙에 입각한 dogma로서의 신학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욱이 학자의 경우에도 신학적 난제(難

7) 攝理 - 병을 잘 調攝治理한다고 쓰이던 말인데 기독교에서 주재신이 하는 이법의 공사라는 뜻으로 써서 일반에게까지 통용되게 되었다. (漢字사전류에는 代理執行, 代辦등으로도 나와 있다.)

8) 전경 1:5 먼저 도수를 굳건히...이것이 곧 삼계공사니라.

題)를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우(愚)를 범하기가 일수나 종교적으로 보아서는 기껏 보조학문 밖에 되지 않는 변두리에서 맴도는 피상적 현상이 되는 것이다.

1950년대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 주임으로 있던 申四勳교수가 ‘思想界’지에 쓴 글로 ‘궤변의 神學’이란 이런 사실을 설파한 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이것이다.

‘기독교의 신학이란 학문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처녀탄생이나 또 신의 아들이란 것, 죽은 후 사흘만에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 또 그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하나의 궤변이라 할 것이다.

신학이란 바로 이런 궤변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9)</sup>한 것이었는데 dogma를 sophistry로 말을 바꾼 것이지만 신학을 극명하게 잘 나타낸 말이라 할 것이다.

일반 종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학문의 분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의 신앙을 통속적인 상식이나 종교적 학문으로 대하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려 하니 풀려 질 수가 없다. 그 근본자체가 풀릴 수 없는 궤변의 난제(難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 1. 종교학적 전개(展開)와 신학(神學)적 전개

대순진리회의 교의의 근원이 되는 상제신앙을 종교학적 전개와 신학적 전개로 대비 고구해 본 다음 비로소 상제신앙 성립의 여부(與否)를 찾아보며 또 그 상제의 위격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 하는 것이다.

혹자는 여기 대해서 기왕 신앙하는 바에는 무조건 신앙하는 것이 참신앙 일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될 수 밖에 없는 악덕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선종(禪宗)같은 데서는 참선(參禪)을 하는데 묵조선(默照禪)<sup>10)</sup>이라고 해서 지관타좌(只管打坐)<sup>11)</sup>로 가부좌(跏趺坐)하고 조용하게

9) 1955 월호 思想界 소개 申四勳 궤변의 神學

일념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宗)도 있지만 공안(公案) 화두(話頭)를 지니고 수선(修禪)하는 종도 있다.

이런 방식의 선을 간화선(看話禪)<sup>12)</sup>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화두에 회의(懷疑)를 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것으로 깨달은 이를 붓다(duddha)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목조선의 경우도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것 [成佛]은 마찬가지지만...) 이때의 회의를 선종의 용어로 의단(疑團)이라고 하는데 의단이 클수록 [大疑團] 깨달음도 크다 [大覺悟]고 하느니 만큼 회의는 깨쳐서 오롯이 체인(體認)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 바 이것은 모든 사물에 대한 학인(學人)의 태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순사상에서 상제에게 대한 관(觀)을 확실히 인지(認知)하고 신앙하면 대순진리회의 도인이 되는 기초가 완전하고 공고해질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런 뜻에서 상제신앙에 대한 종교학적인 면과 신학(종학, 도학, 교학이라고 해도 좋은)적인 면에서의 비교 연구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 1) 종교학적 전개

먼저 종교학이란 무엇이나면 자연 과학과 대비할 인문과학의 한 장르로 나누어지는 학문이다.

사전에서는 간단히 풀이해서 '종교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sup>13)</sup>이라고하여 있다.

좀더 말을 보태면 종교의 발생·발전·조직·교의등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통된 종교학과 개별종교학(비교종교학도 여기에 포함된다.)으로 구별된다.

일반 종교학에서 종교과학·종교철학 같은 학문이 생겨나고 개별종교학에서 특수한 신학·도학 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신학의 속성(屬性)상 그렇

10) 목조선(默照禪) - 일본불교 조동종(曹洞宗) 좌선의 방법

11) 只管打坐 無念無想의 상태에서 그냥 좌선만 하는 것

12) 간화선(看話禪) - 일본 임제종(臨濟宗)좌선의 방법, 한국은 조계종을 비롯한 대다수의 종(宗)들이 이 방식으로 하고 있다.

13) 國民書館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



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종교학이라고 하면 종교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의 학문이어서 종교철학,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종교사, 종교민족학, 종교음악, 종교문화 등 수많은 갈래의 학문이 생겨나는 것이다. 개별종교학의 경우도 대동소이하게 발전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순사상내지 교의에서의 상제신앙에 관한 부분을 종교사(史)적,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고구해 보려는 것이다.

그것도 다만 역사상의 한 기성(奇聖)이며 예언자, 역학자(易學者), 의원(醫員)으로서의 증산 강일순이란 자연인과 또 그를 구천상제로 받들고 하나의 종교단체를 이룬 조정산이란 인물의 생애와 그 교훈에 대한 것이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인적사상은 다음 도조론(道祖論)·도주론(道主論)에서 상론(詳論)하겠기로 여기서는 간략한 논술을 시(試)할 뿐이다. 그것도 증산 강일순 한 사람만이 아니고 양위상제라고 하는 도주(道主)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의 두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먼저 증산 강일순에게 대한 증산계 각 교단의 도인들이 그를 대하는 관념도 각양각색이다.

증산의 경우 천주(天主)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천주(天主)아래 단계인 통천상제(通天上帝)로 어떤 곳에서는 옥황상제로 또 어떤 곳에서는 강성상제(姜聖上帝)로 호칭하고 있으나 교단 협의체에서는 증산대성(甌山大聖)이란 인격적 칭호를 공동사용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또 천사(天師)니 성사(聖師)니 하는 인격적인 위호를 붙인 곳도 있고 또 신격화해서 최고신 상제라든지 또 최고신으로 해도 중국 송대(宋代) 이전의 칭호를 임용(仍用)해서 옥황상제로 부르기도 하며 인격인 증산이란 호(호)에다 상제라는 신격위를 합해서 증산상제로 호칭하기도 하는 등 호칭도 갖가지며 관념도 갖가지로 다양하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그리고 귀납적으로, 인문과학적으로 보는 종교학적인 눈으로서는 대순진리회라는 종교단체의 주신(主神)인 신앙대상으로 받드는 양위상제의 신격위상을 찾아 낼 수도 없거니와 신앙대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이념상으로 방황하여 최고신의 사자(使者) 또는 중개인(仲介人), 지도자, 선지자 등으로 밖에는 규정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종교학과 함께 신학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결과로 증산교 교단 가운데는 기독교의 성서를 인용하고 유태인의 신인 여호와신이 곧 상제라는 등 도리에 어긋난 발상과 해설을 가하게 되는 망발을 범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다.

그래서 다만 종교사학, 종교철학등의 원용(援用)을 받아 교의(教義<sup>14</sup>) = 宗旨<sup>15</sup>의 上位格 用語)를 설정하든지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자기 종교의 신앙대상이 우주의 최고신으로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일반 종교학이 아닌 특수, 개별 종교학적인 주관으로서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백년전, 이땅에 출현했던 증산이나 정산의 신격화한 상제로서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은 오직 신화 곧 신을 대상으로 하고 신앙에 입각한 교도의 입장에서 연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제신앙의 진정한 연구태도는 신학적 전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능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 2) 신학적 전개

대순사상의 교의를 신학적 체계로 분류함에 있어 먼저 불교의 유형과 기독교의 유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경우 신학이라고 번역하는 *theology*<sup>16</sup>로 체계화하여

역사신학(성서학, 교의학, 교회사 등)

조직신학(신·기독교·계시·구원등 근본교의 이론)

실천신학(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교육학 등)

14) 教義 - 어느 한 종교의 교리

15) 宗旨 - 어느 한 宗派의 교리

16) *theology* Theos와 logos의 합성어(神의 學)

의 세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불교는 이러한 분류를 교상판석(敎相判釋 《敎判》)이라고 해서 종(宗)마다 다르게하고 있지마는 근본적인 귀의(귀의)의 대상으로 세가지를 설정하여

교조론(敎祖論 = 붓다(buddha) 〈佛〉)

교리론(敎理論 = 다르마(dhasme) 〈法〉)

교단론(敎團論 = 상가(samgha) 〈僧〉)

을 3보(三보)<sup>17)</sup>라고 하고 있다.

따져보면 불교의 세가지 버리(綱)나 기독교의 3부 신학이 용어의 차이일 뿐 내용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온갖 학문의 용어가 서구적인 것의 번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신학(神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다.

하기야 오늘의 학문 모두가 정치학이니 법학, 철학, 윤리학, 논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모든 것이 서구에서 건너온 학문들이며 그 용어를 번역 사용하는데 신학만을 기독교 전용이라고 해서 거부할 까닭은 없으니 증산신학, 대순신학 등의 용어 사용이 활발해지는 것이 대순사상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교 같은 데서도 불교신학이란 말을 곧 잘 사용한다.)

이제 논의할 상제신앙에 대한 문제는 조직신학 가운데 교의학(敎義學)의 과제가 된다. 참고로 이 조직신학이란 말이 일반에게 선뜻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졸저(拙著) ‘증산신학개론’에서는 ‘이론신학(理論神學)’<sup>18)</sup>이라고 명명 사용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해둔다.

필자는 그 개론서에서 대순사상의 상제를 자신개현의 신관(自身啓現의 神觀)<sup>19)</sup>을 전제로 하여 세계 각 종교의 주신인 최고신과 대비하여 신인즉일(神人卽一)<sup>20)</sup>의 기조 위에 우주최고신으로의 이론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양위상제 곧 증산과 함께 정산을 신앙대상으로 하

17) 삼보 - 범어 tri-ratuma(세가지의 보배)이것을 형이하적으로 석존과 經典, 출가승의 세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18) 배용덕, 임영창 공저. 증산신학개론 상·중·하

19) 전계서

20) 전계서

느니 만큼 약간의 보충적인 논의가 없을 수 없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 지구상에 출현했던 자연인을 신격화하고 또 그 신의 위격이 최고신의 사자(使者)라든지 또 일반적 신명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신(神中神)인 최고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실로 신학상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것도 한분의 상제가 아닌 양위상제이기에 고도한 이론의 받침이 없이는 안되는 난제인 것이다.

이것이 다만 인문과학인 종교학적 관점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니 그래서 신학적인 dogma가 필요한 것이다.

## 2. 神신앙과 教義신앙의 차이

세계의 종교는 거의 모두가 신앙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신이 자신을 지배하여 복을 주고 화를 준다고 믿고있다. 그래서 그 신을 숭배, 예찬하고 기구(祈求), 원도(願禱)를 하고 있다.

그 신앙의 대상신도 각양각색이니 힌두교<sup>21)</sup>의 브라만 [Brahman = 婆羅門] 처럼 비인격적(非人格的)인 신도 있고 한국의 단군이나 일본 신도(神道)의 아마테라스오미카미 [天照大神] 처럼 지상에 생존한 인간인 경우도 있다.

또 국제적인 신도 있으며 일국(一國)의 수호신(守護神)으로서의 신도 있다. 그밖에 특수하게 자기의 조상신(祖上神)만을 신앙하는 종교도 있으며 산신(山神)·용왕(龍王) 또는 하늘·땅·태양, 심지어는 생식기(生殖器)를 신격화하여 신앙하는 종교도 있다.

더욱이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원시신앙과 민속신앙에 이르러서는 위의 '신명론'에서 말한대로 애니미즘, 토테미즘, 범신사상, 정령사상 등 온갖 것이 혼합된 신앙대상이 생겨났고 또 단독적으로 신앙도 생겨났는데 이것을 큰 테두리로 하면 모두다 신신앙의 종교형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신앙과는 다르게 종교철학, 윤리, 수양덕목 등의 교의 더

---

21) 힌두교(印度教) - 고대의 브라만교를 계승한 인도의 종교.  
힌두교에서는 지금의 불교를 自敎의 한 派사상으로 보고있다.

차원높게는 진리 그 자체를 믿고 받드는 종교도 있다.

이런 교의신앙의 종교가 서구인들은 자기네의 신본주의(神本主義)적 종교의 눈으로 볼 때 종교 같잖게 보여서 어떤 학자들은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다’고도 했고 근일 종교단체로 정부에 등록하고 조직체계를 갖춘 유교도 그건 윤리철학일 뿐 종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었지만 우리 동양인 그 가운데도 한국서는 아주 민족문화의 근저가 된 종교로 보는 것이다. 종교로서의 불교는 천6백년을 전승되고 있고 유교는 타종교와 비교해서 형식상 미흡한데는 있어도 7백년 넘게 오늘까지도 그 교의가 우리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대한 저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 인과응보의 연기법(緣起法)<sup>22)</sup>속에서 우주도 생성되었고 인간을 위시한 문생명 [衆生] 이 살아가면서 바른 길 [正道] 곧 무지(無知 = 불교에서는 無明이라고 한다)에서 벗어난 광명한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교의인데 그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인 동시에 인간학이 된다.

유교의 경우는 더 우리와 가깝게 피부에 젖어 있는 교의가 있다. 하늘을 경외하고 그 하늘의 도(道)에 의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5상(五常)을 기조로 하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이상으로 3강5륜(三綱五倫)의 윤리 속에 생활하게 하는 또한 위대한 인간학이다.

한국의 민족종교도 대개는 신앙대상이 최고신이 되어 있지만은 꼭 교주를 최고신으로 신격화해서 신앙하지 않는 교단도 많이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은 신본위 사상에 입각한 신신앙의 교의인 것은 물론인 동시에 도조, 도주 양위분을 상제로 신격화하여 모시는 2위1체사상이 대중교의 3신 1체 사상과 쌍벽이 된다고 할 것이다.

### 3. 신학적 대순사상의 정립(定立)

그러면 이렇게 특이한 신관 그 중에도 상제관이 21세기를 맞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신앙세계로 들어오게 하여야 하는 것이 교화 포덕을 담당한 교단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22) 연기법 - 因緣生起의 약어로 연기라고 하는데 인연법, 인과법이라고도 부르는 원인결과의 법칙

그러기 위해서는 대순사상, 그 가운데도 가장 근간(根幹)이 되는 상제신앙의 신념을 감정적인 면과 함께 이성, 이론적인 면에서 확고하게 부식(扶植)시켜 주지 않고는 안된다.

그러나 그 상제론을 종교학의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면만으로는 이해시키기가 불가능할 것이 자명(自明)한 바 이것은 당연히 신학적으로라야만 조직, 구성, 규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대순사상의 상제신앙과 또 그에 따른 신명론의 확립에 보탬이 되어 대순사상이 신학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 1) 일반 신명론의 정립

이미 이 원고의 상편으로서 신명론을 논술하였기에 더 상세한 말은 할 것 없지만 필요에 의해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 뿐이다.

자연과학적으로야 우리 인간은 유인원과(類人猿科)에 속하는 직립(直立) 동물인 호모(homo)<sup>23)</sup>로서 사유(思惟)와 언어의 기능이 있는 고등동물이다.

그들은 그 사유의 상상력으로 자연현상에 대해서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가치관을 부여하여 신(神)이란 존재를 창출(創出), 언어(뒤에 발생한 문자까지를 겸해서)로서 표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문과학의 종교학적으로 유별(類別) 정리되고 또 지역적인 공간으로 연구되고 역사적인 시간으로 정리되어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 각 지역 인류의 신사상이다.

더욱이 사회과학 그 가운데도 사회학적으로 볼 때 대순사상이 개인의식보다 사회 연대의식을 강조하여 남 잘되게하는 법을 교시하는 등 고도화한 사회윤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발달한 윤리사상의로서 전개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형이하학적인 것만으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진면목을 찾아 내지도 못하고 또 나타내지도 못하는 것이다.

23) 호모(homo) -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 붙여진 이름. 양쪽 동물로서 미개한 호모 엘렉투스(homo electus)에서 진화한 사람이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곧 예지인인데 오늘의 현대인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고대부터 지니고 있는 사상의 진면목 곧 사람이 사람만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닌 신명(神)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재발견하여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관의 고양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순사상이 교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모두 신이 있는 동시에 또 죽어서는 신계에서 신으로 생활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날의 인간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전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제의 이상인 한 광구군생(匡救群生)의 사상이다.

전명숙이...죽어서 조선명부가 되었느니라.<sup>24)</sup>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sup>25)</sup>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있으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sup>26)</sup>

이러한 경서(經書)의 가르침을 통하여 먼저 대순사상 특유한 신명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니 이의 정립없이 상제신앙 - 곧 하나의 자연인을 상제라는 신으로 믿는 신앙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 2) 상제관의 정립

제1장 서설에서 상제관 정립의 필수성을 피력했지만 일반 신명론의 정립을 제1단계로 한 상제론의 사상적 정립은 대순사상에서 가장 중대한 기초임을 재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상제관에 대한 위격과 역사성 등을 논할 것이므로 상세한 이론은 피하고 여기서는 상제사상의 정립으로라야만 대순사상의 종교 교의화가 성립된다는 것만을 말해 둔다.

여기에 다만 한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은 대순사상의 상제론은 '사람은 곧 신이다. [人卽神]'하는 기조 위에서 성립된다는 것이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人乃天]'하는 사상과도 통하고 '모든 중생에게

24) 전경 교법 1장 2절

25) 전경 교법 1장 50절

26) 전경 교법 3장 2절

다 불성이 있다. [一切衆生 悉有佛性] '고 하는 불교의 사상과도 근사(近似) 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즉신(人卽神)의 사상이 정립되면 마치 인간 세상에 제왕(帝王)이 있듯이 신의 세계에도 신성이 뛰어난 제왕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의 발상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그 신은 어떤 이가 될 것인가? 그것은 인간 중에도 위대한 인간 [人中人] 이 신명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신명 [神中神] 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그 위(位)를 우리는 상제라고 호칭하여 경배할 수 밖에 없다.

그 상제를 우주의 주재신, 최고신, 조화신으로 받들고 그의 권화(權化)가 무소부재(無所不在 = 안계신 곳이 없음)

무소부지(無所不知 = 모르는 것이 없음)

무소불능(無所不能 =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

한 것을 믿을 때 그 신앙의 심도(深度)는 더 가중할 것이다.

세계종교의 신들 가운데는 아주 인간과 같은 신도 있고 저급하여 인간만 못한 신도 있다. 또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나아가서는 부도덕, 잔학, 포악한 신(그것이 신앙대상으로 받드는 주신(主神)인데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1세기전 인신을 입고 이땅에 하나의 자연인 구도자, 포덕자, 예언자, 구세자로서 바로 인성과 함께 신성을 지니고 지계(地界)에 출현했던 분, 그리고 지금은 다만 주처(住處)를 천계로 옮겼다고는 해도 항상 인계(人界)의 군생을 가호하고 지도하는 분이 상제라고 믿는 것이 대순사상의 상제관인 바 이 상제신앙이 세계의 어느 종교의 신앙대상보다 더 수승(殊勝)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Ⅲ. 대순사상의 상제신앙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순사상의 상제와 그 상제신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천견(淺見)이나마 정성껏 고구해 본다.

대개의 종교는 하늘에 있는 가상(假想)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얼굴도 모르



고 목소리도 들은 일 없이 다만 신에게 방의(憑依)한 사람들이 지껄여대는 말만을 듣고 그것을 신의 명령 [神託] 이라고 믿기도 하며 어떤 종교는 스스로가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든지 부처가 되든지 하는 초인(超人)이 되고자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인신화현하여 세상에 다녀간 증산·정산 두분을 상제로 모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확실성이 큰 장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실존인물을 신으로 믿는 것은 신앙적 주관에 입각한 신학적 해석으로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인식하기 어려운 명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난해(難解)한 명제의 해답은 일반 인문과학이 다루어 갈 범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바 오직 도인들만이 도심(道心)의 신앙으로 풀고 또한 믿어나갈 필수적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 1. 兩位상제 신앙의 역사성

### 1) 도조(道祖) 숭앙(崇仰)에서 상제신앙

대순진리회의 도조(道祖)가 전라도 고부(古阜) 곧 오늘의 정읍(井邑)군에서 지금으로 백 20여년 전에 진주 강씨(晋州 姜氏) 집안에 태어난 일순(一淳. 호 龜山)이라고 하던 자연인인 것은 도·비도인을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재세기간이 불과 37년 9개월로서 오랜 교화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종교구성의 요소인 교의체계나 교단(또는 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사세(辭世)하였는 바 포도(布道)기간은 만 8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소시(少時)때부터 남과 다른 사물에의 관찰과 사고력을 지녔고 윤리와 사회의식 그리고 시국관에 탁월한 천재성을 지녔었다.

거기에 주금술(呪諭術)<sup>27)</sup>, 역술(易術), 의술(醫術)에도 뛰어난 혜안(慧眼)을 지니고 있어서 예시예언(豫示豫言), 치병양재(治病穰災) 등으로 우수한 기행

27) 주금술 - 한국에 전승되던 용신(用神)의 방술

이적(奇行異蹟)을 남겼었다.

당시에 추종하는 인사 곧 종도(從徒)<sup>28)</sup>들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에게서 이인(異人), 도사(道士), 신인(神人)으로 환전(喧傳)되었으며 나아가서는 현화신(現化神) 상제(上帝)로 신봉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가 39세 되던 여름에 화천한 후에 그를 사모하고 숭앙하는 종도들이 종교집단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많은 교단, 도단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도 친자종도(親炙從徒)<sup>29)</sup> 차경석(車京石)이 세운 보천교(普天教)와 조철제(趙哲濟 = 대순진리회의 도주)가 세운 무극도(無極道)가 그 대표격이 되어 일세(一世)에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보천교의 신앙대상은 증산이 아니고, '호천금궐천지일월성수(昊天金闕天地日月星宿)<sup>30)</sup>의 3단(三壇)이며 증산을 천사(天師), 월곡(月谷) 차경석을 성사(聖師)로 봉대(奉戴)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무극도 (곧 오늘의 대순진리회 전신)에서는 1925년 태인(泰仁)에 도장을 열면서 종지·신조·목적을 선포하는 동시에 증산을 신앙대상으로 하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대하였으니 오늘까지 70여년간 도인이 신앙 경배하고 또 기도하는 위호(位號)인 것이다.

이 위호에 대한 것은 다음 절에서 논급(論及)하겠지만 중국 송(宋)대에 도교(道教)<sup>31)</sup>에서 생겨난 옥황상제(玉皇上帝)의 상위층 호칭을 임용(仍用)한 것이 이것인 바 이의 약칭으로 보통 구천(九天上帝)로 줄여서 호칭하고 있다.

## 2) 도주 숭앙(崇仰)에서 상제신앙

대순진리회 도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증산상제를 믿는 종교단체지만 범통계보적으로는 증산교계(甌山教系)가 아니고 무극도(無極道系)란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28) 從徒 - 甌山 재세시에 교단이 없었으니 信徒라고 할 수 없고 또 꼭 修道하던 이들이 아니었으므로 道人이라고도 할 수 없어서 李祥昊가 처음 天地公事記(大巡典經의 臺本)를 저술하면서 使用한 用語

29) 親炙從徒 - 서적등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 스승을 모시고 따르던 사람들

30) 普天教 '教典' 信仰對象 三光影殿圖. 普天教中央教總正院 발행

31) 중국 宋대에 성했던 道教 五斗米派

그것은 도조 증산은 도를 펴기만 [宣道] 하고 도를 개창 [創道]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극의 대도 도단(道團) 곧 교단(敎團)을 개창하고 종지, 신조, 요체, 수칙 등 도의 골격과 도인의 신행덕목(信行德目) 그리고 법방(法方)을 체계있게 교시한 것은 도주 정산이었기 때문이다.

정산 조철제는 증산보다 24년 후의 출생으로 증산에게 친자(親炙)는 고사하고 친견(親見)한 적도 없지마는 이국 만주에서 영적(靈的) 계시(啓示)를 통해서 증산에게 귀의(歸依) 신앙하게 되었다. (일설에는 만주행 기차안에서 봉천명(奉天命)의 영시(靈示)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귀국후(증산 사후) 종교활동을 시작하여 교단형태를 이룬 다음 태인(泰仁)에 본부 도장을 창건하고 무극대도(無極大道)란 도명(道名)을 공포하였으며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대(奉戴) 하였다.

창도(創道)후 그는 도와 도인의 경제생활을 위해 진업단(眞業團)<sup>32)</sup>을 조직하고 개간공사, 간척공사, 벌목공사, 광산개발 등 혁혁한 결과를 얻었지만 1935년 조선총독부가 종교단체 해산령이란 법을 만들어 본부도장을 비롯하여 개척한 130여 정보의 논과 기타 재산 전부를 몰수하였다.

그로부터 만 10년인 1945년 조국 광복을 맞아 48년 부산에 본부를 두고 도장을 중창(重創)한 후 58(무술)년에 서세(逝世)하였다.

정산 사거후에 도조 증산을 강성(姜聖)·구천상제(九天上帝), 정산을 조성(趙聖) 옥황상제(玉皇上帝)로 봉대하여 양위상제라고 병칭(併稱)한 것이 어언 반세기가 가깝게 되어 있어서 대순진리회의 도사(道史)중 지극히 중대한 사실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속에서 인신으로는 도조며 신앙상으로는 상제인 증산과 또한 인신으로는 도주며 신앙상으로는 상제인 이 양위에의 신앙이 5백만 도인들에게 면면히 상승(相承)되고 있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현상이다.

### 3) 다른 종교교의(敎義)와의 대비(對比)

세계의 많은 종교의 귀의 신앙대상도 갖가지지만 또한 그 가지 각색의 대

32) 進業團 - 전경 교운 2:34 정산이 신도 도인들로 구성한 근로대

상도 정립되어 고정되기까지는 많은 역사적 변천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먼저 가까운 동양의 유교(광의적인 의미에서 종교로 보아서)의 경우를 보면 꼭 신앙대상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치성의 제향을 올리는 각 지방의 향교(향교)에는 공부자(孔夫子)를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모신 다음 아성(亞聖)인 맹자(孟子) 그밖에는 그 지방 또는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신위(神位)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있다.

불교의 경우는 신앙대상이라기보다 귀의대상이라고 할 삼보(三寶)가 있다.

그러나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 인도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낸 암베드 카(Ambedkar)가 불교에 귀의하여 신불교운동<sup>33)</sup>을 일으켰을 때 귀의승(歸依僧)이라는 삼귀의(三皈依)중의 하나인 승려(또는 교단)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3보(三寶) 불·법·승(佛法僧)의 승을 없애버리고 2보(二寶)에 귀의한다고 하여 'Namo buddha yah, namo dharma yah'의 두가지만 예송(禮誦)케 한일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귀의 3보가 아니라 귀의 2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붓다란 깨달은 이 [覺者]란 뜻인데 그 깨달은 이들을 모시는 것이 절마다 꼭 같지는 않은 것이 불교의 특색이다. 국내에서도 해인사, 불국사의 주불(主佛)은 바이로차나(Vairocana = 毘盧遮那), 조계사에는 사카무니(Sakyamuni) 구인사(救仁寺)에는 아바로기테스바라(Avalokitesvara = 觀世音)보살 그밖에도 약사(藥師)를 모신 곳, 미륵(maitreya)보살을 모신 곳 등 종지, 소의(所依)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있다.

도교(道敎)의 경우 하늘의 최고신을 옥황(玉皇) (후에 유교의 상제와 타협이 된 합성어로서의 옥황상제로 정착되어 도교 유교간에 통용된다)의 아래 노자(老子)를 태상노군(太上老君)으로 모시고(그밖에도 다수) 있었지만 송대(宋代)의 오두미류(五斗米流)에 이르러서는 대상의 신위가 복잡하게 된다.

옥황(玉皇)이 동서남북 5방에 하나씩 5옥황(청옥황·백옥황 등)으로 늘어나는데 그러고 보니 너무 혼란 무질서한 것 같아서 원시천존(元始天尊)을 5옥황 위에 봉대한다. 나중에는 천존(天尊)도 5방(五方)에 한분씩 5위(五位)

33) 신불교운동 - 인도 해방후 법무장관을 지낸 암베드카가 국회의원이 된 후 신불교주의(Neo buddhism)를 주창하고 신불교당을 조직하여 종교가 곧 정당이요, 정당이 곧 교회라고 하던 운동

의 천존을 봉대하게 되었다.

서구종교의 대표격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주신도 위에서 말했 듯 히브리족이 형성되기 전 타지방에서 이래(移來)해온 케토니아족이 풍양(豐穰)의 신으로 믿고 있던 야웨(Yahveh)를 히브리인 곧 유대족이 형성된 후의 천지유일신으로 승격하여 신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처음에 처녀의 사생아인 예수를 신의 아들로 순화(醇化) 시켰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초대 기독교인들이 성부, 성자라고 위격을 부여하고 그 두분의 근본은 하나라는 2위1체(二位一體)설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성령(聖靈) (구역(舊譯)은 聖神)을 더 무형한 기(氣)와 같은 관념에서 인격적으로 독립시켜 3위1체로 정착시킨 것이 서기 6백년경이다.

이런 타종교의 경우와 비교해서 대순사상의 2위 상제가 도화일체(道化一體)로 인성위격(人性位格)이나 신성위격(神性位格)으로는 각위(各位)지만 도(道)의 화신(化身)으로서의 양위는 일체라는 것이 믿는 이에게는 아무런 부담없는 훌륭한 교의인 것이다.

더구나 다음에 논급될 것이지만 그 분들이 인간 가운데 뛰어난 인간으로서 상제의 위격을 지닐 수 있는 품격과 권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신명 가운데서도 최상급의 신명인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로 봉대할 수 밖에는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신앙자에게는 무리가 아닌 것이며 신봉하는 교단 자체의 위상(位相)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2. 상제신앙의 신학적 논증(論證)

본고(本稿) 상제론을 거론함에 있어서 일반 종교학으로는 특수 종교학적이 라고 해도 자연인을 상제로 봉대한다는 사실을 해명할 수는 없으며 대순사상이 지니는 교의 해석의 관건(關鍵)은 다만 신학적 논증으로라야만 설명될 수 밖에는 없다는 말을 더 한 번 해둔다.

그러면 이제 대순사상의 교의가 지니고 있는 양위상제신앙과 그 봉대(奉戴)의 근거와 논증(論證)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① 신자신의 자각적 계현(啓現)
- ② 행적과 교훈을 통한 실증(實證)
- ③ 신앙자의 체험을 통한 확신(確信)
- ④ 신학적 이론의 타당성

등으로 상제신앙 그것도 상제신앙의 논증을 통한 타당성을 적출하려하는 바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의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교단내에서는 물론 사 학계(斯學界)에서의 심심(深甚)한 고구가 소용된다 할 것이다.

### 1) 신自身の 자각적 계현

신자신의 계현 계시란 종교의 교의 더구나 신 신앙의 종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는 필수적 조건이 된다.

먼저 이런 예를 세계의 타종교에서 들어보면 기독교나 유태교의 경우 그 주신(主神)인 여호와(Jehova)가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느님이다.” 하고 외칠 때부터 그의 유태민족의 호국신다운 역사가 시작된다. 더구나 “나 이외에 다른 하느님 [神] 을 두지말라” 하는 신탁(神託)의 명령에 따라 그때까지의 모든 신을 정리하고 우주에 신은 한분 뿐 [唯一神] 이라는 파격적(破格的) 신관, 그에 따른 신학이 발달되었던 것이다.

불교의 경우 붓다란 인격적 존재지만 깨달음에 이른 대각(大覺)한 이를 말하는 것임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타종교의 신앙과는 다르게 그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 뿐이라 하여도 그것이 일반 종교의 신앙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붓다와 보디샛트바 [보살] 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인도의 종교사상에는 많은 하느님 [天] 과 신들이 있는데 그 천왕(天王)이나 아슈라·아귀·건달바 또 많은 신들이 다 중생(衆生)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교를 무신론(無神論)에 입각한다고 보는 이가 많다. (신을 인간이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리고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에서)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교주(教主)며 예배대상인 샤카무니의 경우도 자기 계현인 ‘나는 붓다가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오늘까지 그를 붓다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천도교도 용담가사(龍潭歌詞)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천은이 망극하여 / 경신 4월 초5일에 / ……만고없는 무극대도 / 여몽여  
각 득도로다 / ……하늘님 하신 말씀 / 개벽후 5만년에 네가 또한 침이  
로다 / ……나도 성공 너도 득의 / 너희 집안 운수로다. 34)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늘님(곧 하늘님)의 자기계현 계시가 수운의 귀에 울려 들리는 이때부터 수운은 신의 명령으로 무극대도를 개창하게 되니 그것이 하늘님 자신의 계현인 동시에 수운이 그 사자(使者)로서의 자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서학에 반대되는 동학(東學)을 일으키니 이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천도교(天道敎), 시천교(侍天敎)등으로 정립된 것이다.

그밖에 수많은 종교들의 신도 장소와 시간 등 경위는 달라도 거의 모두 빙의(憑依), 신탁(神託), 계시(啓示)등 또 다른 형식으로도 신 스스로의 계현이 있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종교의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타종교의 경우와 비교해서 대순진리회의 주신(主神)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는 어떠하였던가 알아본다.

먼저 구천상제 곧 증산의 경우 전경(典經)을 통해서 그 자신이 상제로서 3계의 대권을 자유로이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기계현을 보는 것이다.

나는 3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 낙원을 세우리라.35)  
모든 신성과 불보살이 …… 구천에 호소하므로 내가……신미년에 강세  
하였노라36)  
나는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  
금 가슴에 드나들게하여 다 고쳐 쓰리라.37)  
상제께서……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시기로 정하셨도다.38)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세계를 열어……중생을 널리 건지  
려하노라.39)

이러한 언행이 그 스스로가 상제로서 우주 3계의 대권을 좌지우지(左之右

34) 천도교교서 용담유사 중 용담가사

35) 典經 공사 1장 2절

36) 典經 교운 1장 9절

37) 典經 교운 3장 1절

38) 典經 예시 1장 1절

39) 典經 예시 17절

之)한다는 것을 공포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 자신의 자기계현인 것이다.

다음 정산 옥황상제의 경우는 더 확연한 것이 있다. 정산은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한 영대(靈臺)를 모시고 태인에 무극도 본부 도장을 건축하였지만 일제에 몰수당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해방후 부산에서 태극도로 중창(重創) 재건했을 때는 영대(靈臺) 모신 본전을 대강전(大降殿)이라고 하였는데 그때나 그 전이나 영대(靈臺)에 삼존위(三尊位)를 중심으로 한 바 중앙에 구천상제, 오른쪽에 옥황상제, 왼쪽에 석가여래의 영위를 모셨다.

그런데 정산이 서거하기 1년전인 1957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산도주가 몇몇 임원들과 함께 영대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의 신위(神位)앞에서 그 위치(位紙)를 떼내어 소지(燒紙)한 다음 자신의 사진을 위함(位函)앞에 놓았다는<sup>40)</sup> 특이한 일이니 말하자면 그 자리가 자신의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도인들이 당시에는 그 뜻을 몰랐으나 후에 깨닫고 옥황상제로 모시니 그때의 자기 진영(眞影)을 옥황의 자리에 올려 놓음으로서 자신의 신격화를 스스로 계현, 계시한 것이다.

## 2) 이험(異驗)과 예시(豫示)를 통한 실증(實證)

신이 스스로 어떤 특수인들에 계현 계시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신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반 범상인이 하지 못하는 기사(奇事)와 이적(異蹟)을 하며 또 일반의 의표(意表) 밖의 관찰로 예언, 예시를 통한 사실의 적중을 알아 보아 그 신의 격위를 실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로 불리우는 증산과 정산이 우주 3계의 대권을 맡은 상제다운 이험(異驗)의 유무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들의 언행(言行)을 기록한 전경(典經)이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는 것이니 그런 대목을 찾아본다.

40) 宗教新聞 연재(1989. 7~12) 苔岳 '道主 趙鼎山'



가. 자연현상에 대한 일들

(ㄱ) 구천상제

치도령(治道令)을 내리시면 여름에는 나무에 내린 이슬을 바람이 불어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진흙길이 얼어 붙기도 하고 쌓인 눈이 녹기도 하였도다.<sup>41)</sup>

상제께서 전주 용머리고개(龍頭峙)에서 우사(雨師)를 불러 비를 내리는 공사를 보셨도다.<sup>42)</sup>

풍운우로(風雲雨露) 상설뇌전(霜雪雷電)을 이루기는 쉬우나 눈이 내린 뒤에 비를 내리고……서리를 오게 하기는……어려운 법이라……내가 오늘 행하리라 이르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과연 눈이 내리더니 비가 오고……서리가 내렸도다.<sup>43)</sup>

상제께서 창문을 열고 동천(東天)을 향해 헛기침을 하시니 구름이 흩어지고 별이 나타났도다.<sup>44)</sup>

(ㄴ) 옥황상제

어느날 도주께서……유정(六丁) 신장을 불러 응기하시니 뇌성벽력이 크게 일고 산천이 진동하였도다.<sup>45)</sup>

부산 대신동의 판자촌에 큰불이 일어나 그 불길이 강한 동남풍을 타고 도장을 향해 번져 오르므로……대신동 쪽을 바라보시니 거세던 동남풍이 누그러지고 서풍이 일어나 불이 꺼졌도다.<sup>46)</sup>

나. 치병(治病), 양재(穰災), 기사(奇事)등

(ㄱ) 구천상제

고인은 바둑 한점으로 군병 백만명을 물리친다 하나 나는 돈 옛냥으로 아전과 일진회의 싸움을 말렸느니라<sup>47)</sup>

고부사람 이도삼(산질병 환자)의 청을 받고……눕혀놓고 가지 못하게……그자가 밥을 먹고 난 후에 배가 아프고 변에 담이 섞여 나오다가 14일만에 간질 기운이 사라졌다.<sup>48)</sup>

- 
- 41) 典經 권지 1장 9절
  - 42) 典經 권지 1장 16절
  - 43) 典經 권지 1장 22절
  - 44) 典經 권지 2장 2절
  - 45) 典經 교운 2장 34절
  - 46) 典經 교운 2장 52절
  - 47) 典經 행록 3장 14절
  - 48) 典經 제생 8절

급병으로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업고……찾아 왔도다…… 상제께서 죽은 아이를 무릎 위에 눕히고 배를 밀어 내리시며……‘미수(眉叟)를 시켜 우암(尤菴)을 불러라’고 외치며 침을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주시니 그 아이는……소리를 치며 깨어나니라<sup>49)</sup>

이 공사로 일체의 아표신이 천상으로 올라가니 땅에 굶주림이 사라지고 그들의 재해가 없도다<sup>50)</sup>

‘난국에 제하여 태양을 멈추지 못하고 어찌 세태를 안정시키리오……담배…3대를 연달아 피우시니 그제야 해가 솟았도다<sup>51)</sup>

#### (ㄴ) 옥황상제

마하사(摩訶寺) 방 한간에서 정화수 24그릇을 받들고 49일을……공부하셨도다. 49일이 될 무렵 도주께서 ‘법당의 불상을 보았느냐’……그들이 달려가 보니 불상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도다<sup>52)</sup>

을유년 7월 초엿새날……‘오늘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도수가 바뀌지리라’고 말씀을……‘이제 두려워 말라.’……일본이 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도다.<sup>53)</sup>

위에 소개한 것은 양위상제 증산과 정산이 인간의 의표(意表)와 능력을 초월한 기행(奇行) 이적(異蹟)등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행장(行狀) 기술자들의 말이고 보니 종교적으로 특출한 성인이며 대권능의 소유자였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가르친 수신(修身)의 덕목이나 사회윤리는 다음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정산이 한 말씀과 같이 “없는 말을 꾸며서 남을 유혹하지 말고 올바르게 진리를 전하라. 흑세무민하는 행동은 천지 안에서 용납할 길이 없도다”<sup>54)</sup> 하리만큼 실증(實證)되는 진리로서 정당하고 진실되게 포덕 교화한 태도만 하여도 그들이 진정 군생(群生) 구제에 헌신한 상제의 인신화현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49) 典經 제생 9절

50) 典經 예시 11절

51) 典經 권지 27절

52) 典經 교운 2장 47절

53) 典經 교운 6절

54) 典經 교운 2장 59절

### 3) 신앙자의 체험을 통한 확신

다음 두분의 성자, 대순진리회가 상제로 받들고 있는 증산, 정산의 양위상제에게 대한 신앙자들의 체험을 통한 인식은 어떠했던가를 타진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신앙체험 속에서 상제를 통한 영험을 얻어 난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했다는 등의 신앙실화를 회보(會報) 또는 단행본 간행물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양위상제 재세시 종도 도인들에 관한 전경의 기록만을 몇가지만 적기(摘記)하여 이 항목의 해답으로 삼고자 한다.

김경학이 일찍이 동학에 가입하여 3개월동안 시천주(侍天主)의 수련을 하던 중 어느날 꿈에 천상에 올라 상제를 뵈은 일이 있었도다. 상제께서 어느날 '네 평생에 제일 좋은 꿈을 굳 것을 기억하느냐' 하시니…… 그는 상제를 우러러보니 상제의 형모(形貌)가 바로 그때 뵈은 상제의 형모이신 것을 깨달으니라.<sup>55)</sup>

……원일에게 '네가 동천에 붉은 옷을 입고 구름 속에 앉은 사람에게 4배한 일이 있었으리라. 기억이 있느냐' ……하시니 원일이 문득 깨닫고 일어나 상제께 네 번 절하니……그는·'수년전 갑자기 병이 들어 사경에 빠졌는데·어떤 사람이·'문밖에 나가서 동쪽하늘·구름 속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시리니·4배하라'고 이르기에 그대로 하였더니 병이 고대 나왔다고 하니라.<sup>56)</sup>

차경석(車京石)이 처음 상제를 배알·계당 한 그릇을 경석에게 권하시니 그가 받은 후에 벌 한 마리가 빠져 죽거늘 경석이 수저를 멈추고·망설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벌은 규모있는 벌레니라'하시니 감복하였다. 그는 상제께 소송문서를 꺼내어 보이면서 곡절을 여쭙고(판단해 주시기를)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일의 곡직은 여하간에 소송은 대인의 할 일이 아니라. 남아가 당연히 활인지기를 찾을 것이지 어찌 살기(殺氣)를 띠리오'하시니 경석은 더욱 위대하심에 경복하여·그 뒤를 좃으니라. 닿은 곳이 용양리 물방아집인데 경석은 상제의 식사와 범절이 너무 조출하여 마음에 민망하였도다.<sup>57)</sup>

다음 정산 옥황상제의 경우인데 그도 무극도를 개창했다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또한 보천교와 버금하는 큰 교단을 이룩했으니 당시 조선 3천리에

55) 典經 권지 2장 8절

56) 典經 권지 2장 28절

57) 典經 행록 3장 37절

서 호남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서로 묻기를 ‘차천자에게 가느냐? 조천자에게 가느냐?’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전경은 도주 정산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안면도로 옮기셨는데 도주님을 반가이 맞는 사람이 있었으니...이정률이였다...이 섬에...우일재(宇一齋)를 마련학 공부를 하셨도다. 섬사람 30여명이 도주를 좇으니 그 중에서 이정률이 지극히 따랐도다.<sup>58)</sup>  
도주께서...신사년에 이르기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에 힘을 다하시니 신도의 무리가 이곳저곳에서 무수히 일어나니라.<sup>59)</sup>

위에서도 말했듯 그 당시 보천교의 차천자와 함께 무극도주 정산도로 불리우리 만큼 교단이 확장되어 교세를 떨친 것이 그 만큼 많은 신도(信徒)도인들이 추종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민족 종교를 강제 해산시킬 때 이 두 교단만의 재산을 몰수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4) 신학적 이론의 타당성

대순진리회가 신봉하는 대순사상을 종교학의 큰 테두리와 함께 신학이라는 편협하고 독단적인 이론을 전개 논술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눈에는 경원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종교의 신도(信徒)인 도인들에게는 생명과 심령을 좌우할만한 절대적 대 명제가 되는 것이다.

아무튼 학문의 범주는 엄연한 것이어서 아무리 억설로 우겨도 불합리한 것은 정설이 될 수 없고 일로정연한 체계가 갖추어진 타당한 이론은 교의는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순사상이 종지·신조·요체·목적의 체계로 하나의 뚜렷한 민족종교로서의 출발을 한 지 70여년에 백만의 교도를 포섭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제 3자인 일반 국민에게 교의의 진면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이 딱한 일이다.

신관에 대해서 기독교의 3위1체나 대종교의 3신1체(세뫼한검)설, 불교의 3

58) 典經 교운 2장 9절

59) 典經 교운 2장 43절

신(三身)설에 비교해서 복잡하지도 않고 또한 인간이 곧 신이다 [人卽神] 하는 기초사상 위에 천존(天尊)보다 인존(人尊)사상을 고조한 대순사상으로서 도조·도주의 상제 봉대는 조금도 불합리한 면이 없이 성립되는 교의인 것이다.

또한 종지(宗旨)에서 보이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의 교의가 과거시대의 많은 구 종교들에 비해 신종교(新宗教)<sup>60)</sup>로서의 새로운 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교단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없이 양위상제 신앙을 세상에 명확히 밝히고 음양합덕이 21세기 컴퓨터 시대에 적응될 현대적 해석을 내려져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인조화에 대한 종지도 또한 신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X세대들에게 알리어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조화된 개발에 적응 발휘케 할 커다란 원동력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원상생과 같은 지금까지의 어느 종교에서도 보지 못했던 고도한 사회윤리가 냉전시대에서 화해시대로 들어간 세계의 새로운 질서·구축의 지표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통진경의 경우도 이것은 종교사상의 극치가 되어 신비신학의 범주에 들어갈 명제기도 하지만 이 또한 시대적 상황에 적응시켜 일반인의 지성(至誠)의 일념 고양에 보탬이 되게 하며 진경(眞境)은 신성(神性)을 밝히는 마음의 경지와 함께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이상세계 건설이란 해석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신학적인 형상(形上) 형하(形下)적 이론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실천신학의 부분에 주력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백년을 내어다 보는 대국적 거시안으로 금후의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순사상이야 말로 현대 신학적 이론의 타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종교사상이다. 아직은 역사신학을 논할 시기가 아니지만 과거와 현재의 역사성을 살려서 세계에 군림할 미래를 지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격려해

60) 新宗教 새로 일어난 종교를 新興宗教라고 하는데 그 신흥종교가 자리를 잡아 종교들과 비견할만하게 되면 신종교라고 한다. (기존 구종교에 대비하는 뜻에서) 동경大學出版部 宗敎學辭典

두는 바이다.

### 3. 상제의 위격과 위호(位號)

양위상제의 위격(位格) 그리고 그에 따른 호칭은 대순사상의 주신인 양위상제에게 대한 주신의 개념적 성격과 관계되는 문제로 소홀히 하지 못할 큰 과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증산 구천상제가 화천한 후 증산이 수부(首婦)라고 하였던 고판례(高判禮) 부인이 창교(創敎)한 선도교(仙道敎)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무명의 교당과 교단의 수효가 100개는 족히 넘을 것이다.

그 많은 교단마다 영대(靈臺)나 신단(神壇)을 설치하고 거기에 영정(影楨)이나 신위(神位)를 모시면서 사용한 상제의 호칭 또한 그 수효가 허다하며 위호(位號)도 갖가지다. 특별명사에 또한 보통명사, 대명사까지 사용하여 실로 어떻게 간추리기까지도 곤란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증산 종단 연합회에서는 공통호칭을 대성(大聖)<sup>61)</sup>이라고 결의까지 한 일이 있다.

#### 1) 위격(位格)에 대한 고찰

위와 같은 혼란한 사실은 먼저 도조 또는 도주에게 대한 그 위격을 신명성으로 보는가 인간성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호칭이 다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증산을 가리켜 강성상제(姜聖上帝)라든지 정산을 (趙聖上帝)라고 하는 것은 인성위격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제를 하늘의 주인공으로 본다고 하면 그 하늘님 [天主]에게 동양에서만 쓰는 강씨니 조씨니 김씨니 박씨니하는 인간의 성씨(姓氏)가 있을 까닭이 없다. 증국서 자기네의 임금을 황제, 대제, 상제, 천자라고 사용하던 관습으로 하면 지상의 제왕으로 밖에 되지 않아서 신앙대상으로는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증산상제, 정산상제도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호칭도 인간 세상의 명호를 가지고 천지, 우주의 주재신이란 뜻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

61) 洪凡草 甌山教概說 '共通敎義'

하다. 따져보면 여호와나 알라의 경우도 그 민족의 수호신적인 성격일뿐 우리 동양인의 고유한 상제사상과는 거리가 먼 아류(亞流)의 신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논리로 자명(自明)해진다.

그러나 하늘의 상제와 지상의 씨호(氏号)의 결합으로 봐서 강성·조성상제, 증산·정산상제라고 편의상 사용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꼭 틀린 일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 가. 人性위격

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양위상제를 인성면과 신성면의 양면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그 위격(位格)은 물론 위호(位号)에 대한 인식도 바르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에서 사람의 아들 [人子] 예수가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 [聖子] 로 또 3위1체의 한 분인 다시 말하면 바로 하느님으로서 우주의 원초부터 존재했고 나아가서 우주를 그 손으로 만들었다는 이론으로 정립한 것은 그 인성(人性)면이 아닌 신성(神性)면의 이론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증산이나 정산을 신성면에서 상제로 보기 이전에 일단 하나의 자연인, 곧 과거 대한제국때 한국땅에 태어났던 진주강씨 또는 함안조씨 집안의 후예였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想起)하고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산이 일찍부터 구세제민(救世濟民)의 뜻을 세워 가출(家出)한 후에 유랑(流浪)의 길에 올라서 심지어는 일용(日傭) 인부로 또 벌목공(伐木工)<sup>62)</sup>으로 생활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영명(靈明)한 그의 신인(神人)적 예지는 인계(人界)의 실정과 많은 수도 공부를 거치면서 드디어 모악산(母岳山) 대원사(大院寺)에서 대오철저(大悟徹底)하여 자신이 신가운데도 최고위인 상제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신(人身)으로 제세한 시간적 한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도 하나의 자연인인 호모 사피엔스 뿐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가장 극명(克明)하게 교시하는 말이 있으니 불경(佛經)에 보

62) 이상호 天地公事記

면 ‘마하 샷트바(Maha sattva=大보살)도 밤에 몽설(夢泄)을 할 때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대각을 한 사람도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생활은 일반 범속한 사람과 마찬가지로임을 말한 것이다.

때문에 증산이나 정산도 제세시에는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평생 구도하는 자세로 생활하되 주막에서는 술밥을 들고 농담도 하는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지니고 생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정산의 경우에도 소년의 몸으로 애국지사의 기개를 지닌 부친 3형제를 따라 만주까지 가서 거기서 수도하여 천계(天界)의 계시로 증산에게 귀의하게 되었는데 그의 일생은 하나의 구도인, 포교인으로 일관한 것이다. 정산이 증산을 우주의 최고신이라고 봉대 신앙하리만큼 철저한 종교인으로서 행한 것과 수도공부의 법방을 설정한 것과 함께 산업개발과 휘하 도인들의 민생문제를 늘 머리에 둔 것이 특증이었다.

정산이 증산을 상제로 봉대한 것과 아울러 스스로도 상제임을 자각하여 오늘에 대순사상에서 양위상제로 병칭되고 있는 것이 모두 우연한 일이 아니다.

#### 나. 神性위격

대순사상에서 뿐 아닌 천하의 모든 종교의 신자가 된 인사는 상제위(位)에 있는 이들 뿐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함께하는 인간의 신성을 인식하지 않아서는 엄정한 의미에서 종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신을 믿지 않는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이라고 해도 거의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뜻이 된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人乃天] 하는 교의가 생겨난 것이다.

인간 중에는 그 신성이 개발되지 않은 인간들이 있는데 불교의 밀교(密敎) 경전에 인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있다.

- 수성인간(獸性人間)
- 용성인간(勇性人間)
- 신성인간(神性人間)<sup>63)</sup>



으로 나누어 수성인간은 밀교를 수행 할 자격이 근본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신성이 없는 인간을 갈라내어 버렸지만 동양사상 내지 대순사상으로는 모두에게 있는 신성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증산·정산과 같은 성자들, 신성(神性)이 고도로 발달한 성인들의 위격(位格)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은 위의 밀교의 분류처럼 타고난 근기(根器)자체가 신성인(神聖人)이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순사상에서 도조인 증산과 도주인 정산에게 상제위로서 모시는 것은 자연인 곧 인성면에서의 인격위(人格位)가 아닌 신격위(神格位)라는 것을 이해하는 눈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정당한 공사(公事=處理)라 할 것이며 신학적으로 더욱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2) 위호(位號)에 대한 고찰

### 가. 도조(九天) 위호

먼저 도조 증산의 위호에 대한 것을 증산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소위 증산계 민족종교 각교단에서 찾아 본다.

- 증산교본부 - 통천상제(統天上帝), 성사(聖師)
- 태극도 - 구천옹원뇌성보화천존상제
- 증산법종교 - 증산미륵부처님
- 보천교 - 천사(天師)
- 순천도 - 천주(天主)
- 증산진법회 - 옥황상제, 미륵존불, 하느님(併用)
- 미륵불교 - 구천미륵불
- 선도교 - 만법화권강성상제(姜聖上帝)
- 선도 - 하느님, 천선생(天先生)
- 삼덕교 - 무극신대도덕강성상제
- 법상종 - 용화구주금세천주자씨미륵불
- 동도법종금강도 - 천지원존위증산도성(道聖)
- 미륵종 - 무성상제(戊聖上帝)
- 청도대향원 - 증산성사(聖師)
- 증산도 - 증산상제<sup>64)</sup>

63) 大樂金剛不空眞實三昧耶經 理趣釋

이 밖에도 많은 위호의 호칭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이상으로서도 각양각색으로 자교단 교의에 맞춘 호칭을 붙인 것을 본다.

그리고 보통명사인 선생, 대선생, 대성같은 호칭도 있으며 또 당신같은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린양이니 구주니하는 기독교의 용어나 한국고유의 호칭인 하느님등도 쓰이고 불교적인 미륵불도 많이 호칭된다.

더구나 미륵(Maitreya)은 샤카무니당시는 보살일 뿐이었지만 당래불(當來佛)이라고 해서 샤카 사후 3천년에 이 세상에 온다고 했는데 증산이 금산사 미륵불의 화신(化身)으로 암시한 것이 있어서 많이 인용(引用)되고 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동양사회에서 우주의 최고신을 옥황상제라고 했다가 그 후에 구천상제를 더 높은 위로 한 종교적 사실(史實)이 있기 때문에 대순사상의 교의에서 그에 준(準)해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한 것은 새로 위호를 조작(造作)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위호를 무극도시대부터 70여년간을 사용하였느니만큼 도인들의 신앙대상으로 정착된 기성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도주(玉皇) 위호

대순진리회에서는 도조 증산은 우주의 무극대도를 펴기는 [宣道] 하였지만 교단을 개설하고 종교로서 정착시키지는 못하고 화천했는데 그 사상으로서 대도를 체계화하고 교단을 창설 [創設] 한 것은 정산이기에 도주로 호칭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화천한 후 그를 인성위격으로서 도주 조성상제(趙聖上帝), 신성위격으로는 옥황상제로 봉대하였다.

여기에 정산을 인격위로서 조성상제의 위호를 붙이는 것은 무방하지만 신격위로서 옥황상제의 위호를 호칭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무리한 반론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옥황상제란 위호는 중국 송대(宋代)에 와서 5옥황으로 분리되고 그 윗층에 천존상제가 군림하게 된 종교사적 사실을 알면 아무런 당혹감도

없이 또 모순됨도 없이 수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회문서관(滙文書館)에서 발행한 도교 주문(呪文)집인 ‘옥추보경(玉樞寶經)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전경(典經) 교운 제2장에 나와 있는 옥추통(玉樞統)·개벽주(開闢呪)등 몇가지 주문(끝에 急急如律令이 달린 것)이 위에 말한 옥추경의 주문들을 인용(仍用)했다고 본다.

이로써 도주 정산의 신성위격을 옥황상제로 하는 것이 거부감 없이 수용될 것이니 이러한 일은 신앙에 입각한 도인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체계화할 때 신학이란 도그마틱(dogmatic)한 학문이 소용되는 것이다.

이제 도조 증산과 도주 정산의 위호를 정리하면

|      |      |                                  |
|------|------|----------------------------------|
| 도조   | 인성위호 | 강성상제 (姜聖上帝)                      |
| [甌山] |      | 증산상제 (甌山上帝)                      |
|      | 신성위호 |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br>(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
| 도주   | 인성위호 | 조성상제 (趙聖上帝)                      |
| [鼎山] |      | 정산상제 (鼎山上帝)                      |
|      | 신성위호 | 대도덕봉천명봉신교옥황상제<br>(大道德奉天命奉神教玉皇上帝) |

가 되는 바 교단에서는 증산을 구천상제 정산을 옥황상제로 약칭(略稱)을 하며 합위(合位)하여 양위상제(兩位上帝)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런 위호를 호칭하는 일이 수 십년에 걸친 일이므로 전통과 역사상 이미 교단내에서 정립(定立)되어 있는 것을 타당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끝으로 다시한번 말을 보탬 것은 강성(姜聖上帝), 조성상제(趙聖上帝) 또는 증산상제, 정산상제로 호칭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니 상제를 지상의 제왕으로 보지않고 타종교에서 말하는 천주(天主)나 또 민족 고유의 하느님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최고신이 어째서 강씨니 조씨니 하는 인간의 성씨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유교에서도 공부자(孔夫子)의 위호를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노자(老子)를 태상노군(太上老君)이라고 하여 모시고 있다.

공성(孔聖)이니 이성(李聖)이니 하는 말이나 그들의 성씨(姓氏)나 명(名), 자(字)를 쓰지 않는 것은 일반 현실적 용어로서 그들의 신격 호칭을 나타내지 않는 예우인 것이다. 다만 증산과 정산을 구별하기 위해서 증산상제, 정산상제라는 호칭이 통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 4. 상제의 인신화현(人身化現)론 (道化人身)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고 있는것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신을 모시고 있다 [侍天主] 는 사상은 모든 종교가 거의 지니고 있다.

더구나 동양, 그 가운데도 한국인은 제1편 신명론에서 말했듯 '신명난다' '신이 난다'는 말을 하리만큼 스스로의 안에 있는 신을 의식했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간 망령을 신의 위격 [神位] 으로 모시는데 대순사상에서는 조상신(祖上神) 선령신(先靈神)이라는 위격까지 설정되어 있다.

이런 대전제의 서론을 도입(導入)하고 보면 양위상제가 신계(神界) 또는 천계(天界)에서 인신(人身)을 입고 지계(地界) 인계(人界)에 화현(化現) 강림(降臨)했다는 본론(本論)적 논리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시 말해서 천지우주의 도(道)가 화(化)해서 사람의 몸 [人身] 을 입고 탄생하신 분이 양위상제인 것이다.

형이하(形而下)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는 상제가 땅에 내려 왔으면 하늘의 그 위(位)는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실로 치기만만한 말을 하는 이도 있는데 이런 인사는 종교라는 것이 또 도(道)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장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도화인신(道化人身)이란 꼭 양위상제에게만 적용할 이론은 아니니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도로써 이루어지고 음양으로서 이루어지고 이기(理氣)로서 이루어진 말하자면 인성(人性)과 함께 신성(神性)을 응분(應分)대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무극·태극설과의 연관성(聯關性)

대순사상 그리고 상제론에 있어서의 무극·태극사상과의 연관성을 빼어 놓을 수 없는 중대한 교의가 있다.

그것은 선천도수(先天度數)가 지나간 다음 후천개벽으로 새로운 도수가 돌아오면 거기서 3계의 새로운 무극대운(無極大運=천지가 시작되는 운수)이 열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말세를 당하여 무극대운이 열리리니<sup>65)</sup>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산도 창도창교(創道創敎)하면서 교단의 이름을 무극대도<sup>66)</sup>라고 한 것을 보아도 그러하며 도조, 도주에 앞서 동학(東學)을 편 최수운(崔水雲)도 용담가(龍潭歌)에서

어화 세상사람들아  
 무극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보나  
 .....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sup>67)</sup>

이렇게 당시의 종교지도자, 사회지도자들이 새로운 후천시대의 개벽으로 맞이할 무극대운의 무극대도를 고창하였으며 일제의 학정 아래 신음하던 민중들도 무극대운의 도래에 가슴이 들떴던 것이다.

그러면 일단 무극사상은 어떤 것인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무극이니 태극이니 하기 전에 먼저 중국에서 자리잡고 있던 사상은 유교 경서 4서 3경(四書三經)<sup>68)</sup>의 하나인 역경(易經) 곧 주역(周易)에서 우주의 생성 발전을 건곤(乾坤) 곧 음양(陰陽)과 8괘(八卦)로 설정하였는데 그 주역 계사(繫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65) 典經. 예시 17절

66) 典經. 교운 2장 32절

67) 용담유사 중 용담가의 1절

68) 四書三經. 四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三經 시경, 서경, 역경

역(易)에 태극(太極)이 있다. 여기서 양의(兩儀)가 생기고 그 음과 양의 양의에서 4상(四象二太陽·小陽·太陰·少陰)이 생기며 4상에서 8괘(八卦)가 생겨난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sup>69)</sup>

태극의 음과 양(곤 乾=하늘 坤=땅)에서 우주 만물이 생성하는 것을 설한 동양의 철학이다.

이 역(易)의 원리를 발생론(發生論)적으로 설명한 것이 북송(北宋)의 주돈이(周敦頤=호 염계(濂溪))였으니 그가 태극도(太極圖)를 손수 그리고 그 도해(圖解)를 하여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무극(無極)이 곧 태극(太極)이니 태극(太極)에서 양의(兩儀)가 생겨나고 양의(兩儀)에서 4상(四象)이 생겨나고 4상에서 5행(五行=木·火·土·金·水)이 생겨난다. (無極而太極 太極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五行)<sup>70)</sup>

이라고 해서 태극의 앞에 무극(無極)을 둔 것과 4상의 다음에 5행을 둔 것이 주역에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었는데 내용으로서는 별 다른 것이 없다. 다만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과 8괘 대신 5행을 말한 것이 더 발전된 이론이다.

본론에서는 8괘 5행의 관계가 아닌 무극 태극이 대순사상과 직결된 연관성이 있다는 것과 그 무극과 태극의 상관관계로 구천·옥황 양위상제의 상관관의 연관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전경 예시(豫示)에 보면 현무경(玄武經)의 1절이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한구절을 대한다.

天文地理 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知慧勇力  
道通天地報恩  
聖師  
醫統 慶州龍潭  
無極神 大道德奉天命奉神教大先生前如律令<sup>71)</sup>

69) 周易 繫辭

70) 周濂溪 太極圖說

71) 典經. 예시 88

문제는 여기에 무극신(無極神)이란 명호가 나오는데 그 무극신이 누구를 지칭(指稱)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 글句 가운데 무극신을 그 다음에 있는 …… 대선생(大先生)전이라는 말과 떼지않고 붙여 썼다고하면 동학의 수운을 무극신으로 보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무극신과 다음의 글구 사이에 한자 간격을 두고 있어서 무극신이 대도덕 …… 대선생에게 올령 [명령] 과 같이 행동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부서(符書)의 전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증산 구천상제가 스스로를 천지 우주 생성의 원초인 무극을 주관하며 동시에 바로 무극신 자신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은 정산이 무극도를 태인에서 개창(開創)하면서 포유(布諭)한 취지서의 일절이라고 할 것이다.

하늘에 무극의 큰 도가 있어 무극의 도리(道理)로 인간은 화생(化生)하느니라. (天有無極大道 以無極之理 化生人矣)<sup>72)</sup>

다시 말하면 무극신이 무극 대도의 그 무극의 이(理)로서 군생(群生)을 화육(化育)한다는 것이다.

또 정산은 광복후에 부산서 태극도로 개창 중창(重創)할 때 그 기원(起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한 것이 있다.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이 안정하면 무극(無極)이 되고 움직이면 태극(太極)이 되어……(道之謂道也者 定而無極 動而太極)<sup>73)</sup>

그러니 옛날에 주역계가 무극이 곧 태극이라는 말의 원리를 풀어서 도(道)가 정(定)해 있는 상태가 무극이고 동한 상태가 태극이니 그 태극에서 음양 양의→4상→8괘가 생겨나는 이치를 설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극의 도리로서 무극도라는 대도(大道)를 창교(創教)하고 또

72) 무극대도 취지서

73) 태극도 기원(起源) 조정산

태극도로 중창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굳이 무극 곧 태극의 도리를 훈고학(訓誥學)적으로 설명할 것은 없고 또한 주염계(周濂溪)를 위시하여 장횡거(張橫渠)·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나종언(羅從彦)등이 내어 놓은 학설들이 있었지마는 대개가 자가견(自家見)의 이론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송(宋)대의 회암(晦菴) 주희(朱熹=일반이 朱子로 높여 부르고 있다)가 이기설(理氣說)의 2원론(二元論)적인 이론을 세운 것이 한국에 까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로써 인류구제의 이상을 곁들이지는 못했다.

조선조에는 유교라고 하면 의례 주자학(朱子學) 그대로를 인식하리만큼 되어 퇴계(退溪) 이황(李滉), 율곡(栗谷) 이이(李珣) 등의 대학자가 성리학자(性理學者)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오직 로고스(Logos)적인 학문으로서의 무·태극의 이론을 도(道)로서의 윤리적 차원과 나아가서는 사회개조, 인류구제, 신기원건설의 종교로까지 발전시킨 것이 바로 구천·옥황상제로 모시는 증산과 정산이었다. 그래서 그들 본인도 자기계현의 방식으로 무극주(신)·태극주(신)로 자처하였으니 오늘의 도인들이 양위상제를 무극주, 태극주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무극과 태극의 이(理)와 기(氣)가 증산·정산으로 화현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론을 탓할 수는 없으니 따져보면 우주의 모든 생물(인간은 물론이고) 이 이·기가 아니고 생성한 것은 없는 것이기에서다.

대순사상을 양위상제라는 인물본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극·태극의 철학사상에 입각해서 인식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정산·옥황상제가 처음 세웠던 교단명이 무극(대)도 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해야 할 것이다.

## 2) 인즉신, 신즉인의 합일사상(合一思想)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의 둘째번인 신인조화(神人造化)란 신과 사람의 조화(調和)로 조화(造化=무엇을 만들어 내는 일)를 하고 화육(化育)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야 우리들 모든 사람이지만 그 신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요점이 되는데 이 신을 일단 상제라고 볼 것이고 또 다음에는 천계(天界)와 유계(幽界)의 모든 신이라 할 것이다. 바로 그 신들은 대개 살아있던 인간이었고 또 우리 속에 신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이 곧 신이라 [人卽神] 는 견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은 죽은 인간이고 인간은 살아 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에서 신과 사람사이의 합일(合一)사상이 성립되면 여기서 전라도 고부에서 탄생한 증산이나 경상도 함안에서 탄생한 정산이 구천·옥황의 양위상제라고 보는 대순사상의 상제관은 무리없이 성립될 것이다.

더욱이 무극과 태극의 이기설(理氣說)까지를 원용(援用)하면 아무런 모순 없이 수용될 수 있는 대순사상의 독특한 개별신학으로서 세계 종교사상에 뚜렷이 광망(光茫)을 떨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 그대로를 신으로 보던 관점은 신명론에서 비교적 상세히 논술하였지만 먼저 한국의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의 3신(三神)사상이 그러하며 일본의 조화3신(造化三神)이라고하는 신들이나 신대(神代) 7대(七代)의 신화가 그러하고 희랍의 제우스신을 중심한 신화며 로마의 쥬피터를 중심한 그것이 모두 인간과 (신성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자격 미달로 차치하고) 신은 서로가 조화하는 것이며 조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따져보면 신과 인간이란 모두 우주의 대자연 무극과 태극의 기운 속에 생겨난 다같은 존재로서 신이니 인이니 하는 명사는 인간사회의 분류된 관념 속에서 생겨 났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간 가운데 가장 영성(靈性) 곧 신성(神性)이 발달된 인중인(人中人)이 곧 신중신(神中神)이란 이론이 성립되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니 양위상제가 도의 본체로서 지상에 인신을 입고 화현하였다는 이론은 조금도 허구적(虛構的)인 설정이 아니라, 만인에게 공통되고 또 만인이 다 그러한 (상제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란 뜻으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위상제의 상제라는 신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모든 이들이 또한 살아 있는 신으로서의 자각이 생길 때 실로 증산이 전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인간이 모든 신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들 것이다.

이런 신즉인(神卽人)의 인존(人尊)사상이 오늘의 인간부재(人間不在)의 양상을 보이는 세기말의 세계를 구할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아무튼 본론인 상제론도 이 신인합일의 사상으로서야만 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넉넉히 말할 수 있다.

### 3) 양위상제의 一體설

위의 1)항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대순사상의 양위상제 신앙을 일체화해서 생각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형이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는 일이다.

그것을 현실적이라고 한 것은 이미 강증산 사후 70년간을 구천상제로 호칭하고 조정산 사후 40년간을 옥황상제로 호칭하고 두분을 합칭해서 양위상제라고 하며 종지(宗旨)에서도 두분의 종교이념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형이상적이라고 한 것은 증산·정산 두분을 도(道)로서 이념상, 일원화하여 양위일체(兩位一體)로 보고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일반 윤리적으로도 부부일신(夫婦一身)이니 내외일체(內外一體)니 하는 말도 하고 과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탈 점령해 놓고는 내선일체(內鮮一體)<sup>74)</sup>를 고조하던 때가 있었느니만큼 양위일체라는 사상과 용어가 아무런 우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교의에서도 대종교(大宗教)의 세검한몸(三神一體), 기독교의 삼위일체(三位一體) 또 불교에는 시간적으로 3세제불(三世諸佛)이라고 해서 많은 부처가 있고 또 부처의 삼신(三身二法身·應身·化身)이 있으며 그 다음 위(位)인 보살들이 수도 없이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 타종교의 예를 들 것 없이 정산은 도인들에게 '구천상제는 무극대운을 맡고 나는 태극대도를 맡았으니 이치로서 말하면 체(體)와 용(用)의 작용이 다를 뿐 증·정(甑鼎之間)으로 도로써 한몸(以道一體)라'고 한 일이 있다고 그의 전기에서 말하고 있다.<sup>75)</sup>

74) 典經 교법 2장 56절

75) 內鮮一體 日인들이 日本을 內地라 하고 朝鮮과 한몸이라고 해서 '內鮮一體'라고 하였다.

또 어느때는 ‘구천상제와 나는 무극과 태극의 관계며 증정지간(甌鼎之間)이니 도(道)로써 일체(一體)니라’<sup>77)</sup>는 말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도 하였다.

구천상제께서 ‘나와 그대는 증정지간(甌鼎之間)이라……상제께서는 무극 주로서 재천(在天)하시고 나는 태극주로서 재인(在人)하니 체(體)와 용(用)으로 둘이 아니고 하나니라’<sup>78)</sup>

여기서 말한 체(體)와 용(用)이란 사물(事物)의 본체(本體)와 작용(作用)을 나타내는 말이다.<sup>79)</sup> 이것으로 유별(類別)하여 구천상제를 체신(體神), 옥황상제를 용신(用神)으로 할 수 있으니 증산 곧 구천상제가 도를 편 [宣道] 그 교훈의 뜻을 받들어 도와 도단 [道團] 을 개창 [創道] 한 것이 정산 곧 옥황상제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론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도식(圖式)을 얻을 수가 있다.

### 兩位上帝

|                            |               |                            |               |
|----------------------------|---------------|----------------------------|---------------|
| <b>九<br/>天<br/>上<br/>帝</b> | 姜聖上帝 (人格位号)   | <b>玉<br/>皇<br/>上<br/>帝</b> | 趙聖上帝 (人格位号)   |
|                            | 甌山上帝 (人格位号)   |                            | 鼎山上帝 (人格位号)   |
|                            | 九天上帝 (神格位号)   |                            | 玉皇上帝 (神格位号)   |
|                            | 无極主(神) (神格位号) |                            | 太極主(神) (神格位号) |
|                            | 體神 (體用別位格)    |                            | 用神 (體用別位格)    |

끝으로 사족(蛇足)이지마는 이나라 개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위 신 학문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신(神)이라면 우주에 기독교의 야웨(YAHVE)로 알

76) 宗教新聞 연재 苔岳 道主 趙鼎山

77) 宗教新聞 연재 苔岳 道主 趙鼎山

78) 宗教新聞 연재 苔岳 道主 趙鼎山

79) 體用 - 程頤 易傳序 ‘體用源顯徽其間 本체계(本体界)와 현상계(現象界)가 한가지라는 뜻

고 거기에 엔젤(ENGEL=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동양사람에게 맞게 천신(天神)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다가 성서 공동 번역 이후에 천사(天使)라는 신교의 번역을 따르고 있다)과 사탄(SATAN=이것도 마신(魔神)으로 번역 사용하다가 악마(惡魔)라는 일본번역을 사용하는 것 같다)들인 줄 아는 것이 상식화해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누누히 말했지만 우리 동양인의 신은 인간의 정신(精神), 산신(山神), 용왕신(龍王神), 조상신(祖上神), 칠성신(七星神), 부엌신(竈神), 치간신(廁神), 나무신(樹神) 등 천지만물 심지어 풀 한포기에도 신명(神)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 위의 표 가운데 있는 무극신, 태극신, 체신, 용신등의 어휘가 절로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1년의 신은 세신(歲神), 달은 월령신(月令神), 6신(六神), 청룡(靑龍),朱雀(朱雀), 구진(勾陳), 등사(騰蛇), 백호(白虎), 현무(玄武)<sup>80)</sup>가 있고 5방신(五方神)에 蒼帝(東), 赤帝(南), 黃帝(中央), 白帝(西), 黑帝(北)등 말하자면 우주의 삼라만상이 신 아닌 것이 없지마는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최고(天地之間 萬物之中 唯人最高)라는 동양적인 사고에서 우주의 최고신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구성된다.

---

80) 卜筮正宗 中國上海印書館